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제4주일

제35권 4호(나해) 2014년 12월21일

[묵상]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현재와 미래의 재림

- 1주 - 깨어있어라,
- 2주 - 근본적인 회개,
- 3주 - who are you?
- 4주 - 희망, 용기, 다시 일어섬.

현재의 재림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과 나누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때 마다 만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미래의 재림이란

심판의 날에 오실 주님을 만나는 것,
아무도 피해 갈 수 없는 운명의 날로서
그 날과 그 시간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던 심판의 날로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날, 십자가가 영광으로 바뀌는 날,
희망의 날, 기쁜 날이 되도록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이러한 삶을 충실히 사는 길은
단 한 가지, 매일 매일의 사랑의 실천.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합체)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프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텍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적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엄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3: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제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코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민찬기 요한, 김문성 & 홍봉순, 변혜경 올리안나, 최병운
	(생)
주 일 낮미사	(연)이정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박무성, 송근섭 발렌티노,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이중갑 부르노, 이용식 베드로, 김복남 마리아 & 김차옥 요셉, 변혜경 올리안나, 현시영 요셉, 김성일 바오로, 김시형 시릴로, 김현자, 이석진 가브리엘, 정발바라 & 김야고보 & 조상님들, 낙태 & 유산 & 연육영혼, 송제옥 엘리사벳, 임재화 안나 & 박순희 로사, 엄은섭 도로테오, 메리사토, 김경숙도미니카, 도나에드워드, 조지가보라, 양노엘신부
	(생)서성용 베드로, 이근모 마리노 & 이행자 리드비나, 고정민, 하버카스반 가정들, 사무실 봉사자들, 모든 냉담자와 이교도들, 김연희루시아의 가족들,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차병용클레멘스, 김영길안드레아 & 김복희로사리아, 민영준마르코 & 조화숙안젤라, 민석준 토마스 & 민미애, 정동원 마티아 & 심근영 올리아나 & 아기, 토동2반 가정들, 최성자 카타리나 & 최희태 베드로, 정혜경 카타리나, 김지훈 대전안드레아, 오창근 베드로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무엘하 (Samuel) 71-5,8-12.14.16

화답송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 나는 내가 맺은 이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영원토록 네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이어 갈 네 왕좌를 세우노라.”○
○그는 나를 부르리라. “당신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니, 그와 맺은 내 계약 변함이 없으리라. ○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6,25-27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복 음 루카(Luke) 1,26-38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23	133	101
봉헌	382	270	254
성체	특송: 고백	281	287
파견	133	128	148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쇄신

4) 한국에서의 ‘성령쇄신운동’

1974년 1월 15일에는 처음으로 한국인 25명이 ‘성령 안의 생활 세미나’(성령 세미나)를 수료하였다. 이로써 한국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령쇄신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성령 운동 협의회’는 1975년에 ‘전국 성령 봉사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봉사회는 1979년에 다시 ‘한국 가톨릭 성령 쇄신 봉사자 위원회’로 개칭되었으며, 현재는 ‘한국 가톨릭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로 불리고 있다.

‘한국 가톨릭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인준한 전국 단체로서, 각 교구마다 구성된 성령 쇄신 봉사회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 협의회는 기도회의의 성장과 성령쇄신운동의 발전을 위해 특별 세미나와 전국 대회를 개최하고, 성직자·수도자 성령 쇄신 묵상회도 주관하고 있다. 각 교구마다 구성된 성령 쇄신 봉사회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합의에 따라, 해당교구의 교구장이 임명한 담당 신부와 평신도 대표 1명, 그리고 약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987년도 추계 정기 총회에서 성모 신심과 성령쇄신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2003년 5월 19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성령쇄신운동과 성모 신심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에 이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까지도 많은 교구와 본당에서는 성령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한 도움을 얻고 있다. 성령쇄신운동이 한국 천주교회의 복음화와 쇄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운동에도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3장

‘성령쇄신운동’의 빛과 그늘

성령쇄신운동은 한국 가톨릭 교회에 도입된 이래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중요한 신심 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교구·지구·본당 중심으로 시행되는 성령 세미나와 성령 기도회에서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는 한층 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변화되었다. 특히, 성령쇄신운동은 기존의 신심 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계속>

하느님의 집짓기

오늘 독서 사무엘기를 보면, 수많은 적이 다윗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사방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다리를 쭉 뻗고 마음놓고 살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루하루 편하게 지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느님 생각이 납니다. ‘하느님은 아직 천막 속에 지내고 계시는구나. 이럴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느님의 집을 이제는 지어 드려야겠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한(?) 하느님’을 위해 힘있는 자신이 뭔가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나?’(2사무 7,5 참조)

하느님께서 먼저 다윗의 살길을 열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집까지 지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느새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잠시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내가 등 따습고 배부른 다음의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말입니다.

하느님의 집은 하느님이 지으십니다. 하느님은 아무 데서나 언제나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유다 아주 후미진 산골, 나자렛의 이름 없는 나약한 처녀에게서 당신의 완전한 집을 지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크게 오시지도 않고 아주 작게 오십니다. 또한 작은 인간을 당신의 집으로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바로 하느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싸고, 병들기도 하고, 작은 기쁨에 흥겨워하는 그런 인간에게 하느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옆의 사람 안에 하느님의 집이 지어집니다.

대림절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느님의 집이 지어진 인간을 부수지 말아야겠습니다. 말로도, 생각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하느님의 집을 부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너무 밋고 해를 끼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마치 내가 망치를 들고 성전을 부술 태세로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집을 꾸밈에 있어 얼마나 마음을 쓰고,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집인 내 마음은 얼마나 큰 평수이고, 청소는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 하느님이 계신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왔는지 살펴봅시다.

셋째, 너무 다른 재료들, 하느님의 취향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재료들로 내 인생을 채우지 맙시다. 내 말이나 행동, 생각이나 목표도 좋은 것들로 채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한집 한집이 하느님께서 머무르시기에 가장 합당한 집들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할지언정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서 그분이 보내신 천사의 음성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루카 1,28)

◆강귀석 신부 / 명일동성당 주임

기억의 순서

나뉘었던 일은 다 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기도를 이루는 수많은 단어와 문장들이
오히려 선명하게 마음에 새겨지더군요.
그래서 기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좋았던 일을 먼저 기억하게 해달라고.
좋았던 순간순간이 점점 더 커지고
선명한 풍경이 되는 것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영 아네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덕례 테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서 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이호미 엘리자벳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4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목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목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대림 제4주일 (나해)

오늘 대림환에 마지막 흰색 촛불을 밝혔습니다. 흰색에는 기쁨, 환희, 희망, 순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성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비천한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오시니, 우리는 아무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성탄 / 송년 / 새해 미사 안내

- ◆ 성탄 대축일 밤미사 : 24일(수) 밤 9시
- ◆ 성탄 대축일 낮미사 : 25일(목) 오전 11시
학생미사는 따로 없습니다.
- ◆ 송년감사 미사 : 31일(수) 밤11시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를 겸하지 않습니다.>
- ◆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 : 2014년 1월1일(목) 오전 11시

*** 새 영세자 축하합니다 ***

◆ 세례식과 축하식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주일 (21일) 세례식에서 12명의 새 영세자가 탄생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새 영세자 : 김지현 라파엘라, 김은진 이사벨라, 류현욱 피아, 민관기 시몬, 박동욱 미카엘, 박마이클 미카엘, 박점숙 비비안, 성우경 안토니오, 양은정 루멘, 현선 베로니카, 이애나 안나, 이정희 베드로

- 축하식 : 강당에서 미사후 축하예식이 있습니다.

◆ 요셉회 12월 모임

- 일시 : 12월21일(주일) 미사후

◆ 성탄대축일 밤/낮 미사후 성모회가 간식 마련

- 24일 성탄대축일 밤미사후 : 어묵국
- 25일 성탄대축일 낮미사후 : 떡나눔

◆ 한해를 보내며... 송년 저녁식사에 전신자를 초대합니다.

올한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주님과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신 교우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신부님께서 본당의 모든 교우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주셨습니다. 모두 참석 하시어 서로 축복을 빌어 주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8일(주일) 오후 4시30분
- 장소 : 본당 친교장

◆ 2014년 교무금과 성전헌금을 12월중에 마감합니다.

- 올 한해도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봉헌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내년초 Income Tax Return(개인세금보고)를 앞두고, 올해 낸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12월 중에 마감해주시면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본인의 헌금기록(2014년) 조치가 가능합니다.

◆ 영어교리반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영어교리반을 모집합니다.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2월21일(주일) * PV 2,4반: 북어국 & 부추겉절이 (\$3)
* 주일학교 : 겨울 방학, 수업없음
- 12월28일(주일) * PV 3반: 미역국 백반 (\$3)
* 주일학교 : 겨울 방학, 수업없음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강인모	권태만	김대우	김병태	김양금	김영숙		강인모	권태만	김대우	김양금	김영숙	김우용
	김우용	김윤진	김정선	김정순	김정엽	민경근		김정선	김정엽	민경근	민기남	박선희	박완철
	민기남	박선희	박완철	박음전	변정선	송재훈		박음전	변정선	신대식	안민수	안태갑	양영관
	신대식	안민수	안재경	안태갑	양영관	엄정자		엄정자	오영섭	오태환	이우성	이일길	이현주
	오강남	오영섭	오태환	윤석구	이우성	이일길		장영우	정규숙	조화숙	최열자	최이원	최지영
	이현주	장영우	장영진	진동훈	정규숙	정병훈		최진수	황지영				
	정인옥	조소영	조화숙	최열자	최이원	최지영							
	최진수	최희숙	홍석인	홍인표	황지영	황철수							
합계:\$6,795							합계 : \$3,215						
주일미사 헌금 : \$3,049							감사헌금 : \$300 (윤석구, 이병우, 석순영)						

◆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13일 토요일 오후2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된 주일학교 크리스마스행사가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유치원에서 12학년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예술제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은 각자의 기량과 재능을 맘껏 선보이고 큰 박수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행사를위해 수고하신 교사들과 자모회에 감사드립니다.

◆한인 가톨릭 청소년대회

Korean American Catholic Youth Day

고등학생들은 모두모여라!

함께모여 우리의 문화와 신앙을 나누자!!!

- 일시 : 2015년 1월 3일(토) 8:30am~7:30pm
- 출발 : 7시30분am
- 성당에 집합하면 선생님들이 Ride합니다,
늦게오시면 직접 애나하임으로 오셔야하오니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겨울방학

- 12월21일, 28일 두 주일 수업 없습니다.
-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는 그대로 영어로 진행합니다.
- 개학 : 1월4일(주일)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성 아그네스성당 연말선물용 이나시오 커피판매

- 가격 : \$10, \$20, \$50
- 주문 : 카페방문, 전화, E메일
- 수익금은 쉼터조성, 나눔실천, 성당건립을 위해 사용됩니다.
- 문의 : 이나시오카페 ☎(323)731-4433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8학기

- 일시 : 1월9일(금),10일(토) 저녁 7시~10시
1월11일(주일) 낮2시~5시
- 장소 : 성아그네스성당 회관
- 수강료 : \$50 (\$20/1일)
- 대상 : 신자및 일반인 모두환영
- 문의 : 김크리스티나 ☎(323)896-7525

☺ 서로 인사 합니다. ☺

소공동체 12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이순자 비비안나 991-4838 12/12(금)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민수 바오로 986-1890 12/20(토) 오후 6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2/12(금) 오후 7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박근식 미카엘 294-9444 12/13 (토)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형상 요셉 991-8556 12/13(토) 오후5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이금순 카타리나 424-230-1146 12/12(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상근 바오로 625-3312 12/19(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634-6923 12/12(금) 오전11시 강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12/13(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정병옥 율리아 404-1607 12/15(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	박진수 스테파노 / 749-3151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2/13(토) 오후 7시 합기도장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213-700-6983 12/12(금) 7시 Lampost Pizza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김관기 라파엘 541-3687 12/13 (토) 오후 6시30분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12/3(금) 오후7시 강당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변복순 베로니카 617-3568 12/16(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요세피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의	오후1시
------	------

124위 시복특집 < 16 > 이국승 바오로(1772~1801년)

...당신들은 나를 동정하는 것 같은데, 참으로 불쌍한 것은
당신들이오....

‘성경’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이국승 바오로는 충청도 음성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충주로 이주해 살았습니다. 장성한 뒤 천주교에 대해 듣게 된 이국승은 경기도 양근에 살던 권일신을 찾아가 그에게서 교리를 배우고 교회의 본분을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국승은 1795년의 을묘박해 때 체포되었지만 아직은 순교에 이를 만큼 신앙이 영글지 않아 배교의 말을 하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석방된 그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보속을 위해 전심전력 하였습니다. 한편 이국승의 부모가 그를 혼인시키려 하자, 가족 때문에 본분을 다하지 못할까 염려한 이국승은 동정을 지키며 살기 위해 한양으로 이주했습니다. 한양에서 이국승은 훈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천주교 신앙을 전했습니다. 1797년 이후 이국승은 황사영의 집에 유숙하면서 총회장 최창현, 명도회장 정약종 등 지도층 신자들과 교류하며 함께 교리를 익히는 한편, 열심히 교회의 일을 돕는 가운데 주문모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가르친 신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입교하였고, 이로 인해 그의 명성은 널리 퍼졌습니다. 때문에 1801년 신유박해 초기부터 포졸들은 이국승의 존재를 들어 알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된 이국승은 포도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이국승이 옥에 이르렀을 때 마침 황해도 출신의 고광성이 배교하고 옥문을 나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국승은 “배교한 것은 제가 아니고, 마귀가 저를 속여 저의 입을 빌려 말한 것입니다.”라고 관장에게 고하라며 고광성을 권면했고, 고광성은 여기에서 힘을 얻어 순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국승 또한 형벌과 문초를 받는 동안 여러 차례 고광성과 같은 일을 겪어야만 했고, 형벌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관원이 고문을 그치고 석방하려고 할 때에 뉘우치는 마음이 생긴 이국승은, 풀려나면 곧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종교를 신봉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여러 차례 이런 유감스런 장면이 되풀이 되었지만 하느님께서 인간적 약점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국승의 진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느님께서 당신 종의 교만과 스스로에 대한 과신(過信)을 모두 정화하신 뒤에야 신앙을 증거하고 순교의 영광에 이르는 데 필요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국승은 1801년 7월에 사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충청도 공주로 이송되어 거기서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29세였습니다.

◆ 서울대교구 홍보국 역임

내 마음의 10대 뉴스

한 해의 마지막 자락에 서면 여러 언론 매체에서는 한 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한다. 나도 내 나름대로 내 마음의 10대 뉴스를 꼽아본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군대 폭

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충격을 가져다주고, 또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뉴스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나는 올해의 첫 번째 뉴스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문을 꼽고 싶다. 사실 교황님께서 보여주신 가난하고 아픈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과 낮은 자세는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로마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중 말씀은 내 영혼을 깨우고, 내 마음의 큰 위로와 치유가 된 사건이었다. 기자회견 중에 교황님의 말씀은 이러했다. 세월호 배지를 달고 반나절이 지나자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니 배지를 떼는 것이 좋겠다.”고 했단다. 교황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교황님의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오해의 소지를 주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말씀이야말로 성경 안에서 드러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특별한 자리와 맞닿아 있고, 사회교리에서 말하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원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한국의 주교님들께 이르신 대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이들의 교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은 가난한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가난한 이들이야말로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이다.

물론 가난의 뜻이 물질의 결핍에만 한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난은 세상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만 신뢰하는 태도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연대의 마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난을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지나치고서는 스승의 삶을 따를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뜻에서 인간 고통의 현실 앞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그 현실을 외면하는 것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외면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황님의 말씀은 잠자고 있던 나의 양심을, 그리고 무디어져있던 내 마음을 일깨우는 하나의 죽비와도 같은 것이었다. 올해 나를 일깨우는 최고의 뉴스는 바로 교황님의 이 말씀이었다

◆ 이 동화 타라쿠스 신부 / 노동사목 담당